

Robert Vannoy 박사, 구약 역사, 강의 22

© 2012, Robert Vannoy 박사 및 Ted Hildebrandt

아브라함 언약 - 창 12, 15, ...

신명기 수업 배정

다음 주 과제에는 신명기의 구조에 대한 서면 분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긴 논문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이 신명기를 읽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용의 구조와 주요 구분을 숙고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요약하는 Schul tz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찾고 있는 것은 신명기의 개요 형태에 더 가깝고 확실히 주요 구분과 하위 구분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1-11장의 기본 목적을 명시하고 책의 핵심인 법적 자료인 12-26장의 주요 범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27~34장에 나오는 내용의 성격.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찾고 있는 것은 자료의 구조적 개요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려는 일의 배경으로 수행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긴 종이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책의 구조를 살펴보게 하는 것뿐입니다.

본 강좌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에 신명기를 읽으면 이에 대한 준비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자료를 주의 깊게 읽고 숙고하도록 격려하는 동기 부여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의 본성은 당신이 일반적으로 더 나은 일을 하는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박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자료를 숙달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

역사적 인물로서의 아브라함

1. 아브라함과 블레셋 사람들

2.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아브라함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창세기 12:1-3 - 수동적 또는 재귀적

우리는 지난 수업 시간에 역사적 인물인 아브라함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논의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접촉이 족장 시대의 시대착오적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2.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아브라함” 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하위 지점이 있지만 a. 이것은 나열된 네

구절에 언급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1-3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 아래에서 하고 싶은 것은 이 구절들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과 7절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백성과 본토를 떠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실 다른 곳으로 떠나라는 부르심의 원래 진술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특정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가 그 땅에 들어간 후에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

이제 축복에 대해 논의하는 2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나라를 이루고 그가 복을 받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맥락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방금 하란을 떠났고 그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브라함으로 큰 나라를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앞부분의 맥락에서 위대한 이름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언급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야심이었던 창세기 6장 1-4절로 돌아가서 우리는 거기에서 해석의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6장 4절 끝에서 그러한 결혼의 자손에 대해 읽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이름을 지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창세기 11장에 이르면 사람들이 모여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모였을 때,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이르면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구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합당한 방법으로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마지막 문구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읽습니다. 그 진술은 3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제 3절의 마지막 문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번역 문제가 발생합니다. 킹제임스성경이나 NIV에 나오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한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번역이 수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를 통해 축복을 받으라.” 반면에 Revised Standa

rd Version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또는 “네 씨로 말미암아” 라는 문구가 창세기에 다섯 번 반복됩니다. 여기 창세기 12장 3절에서 히브리어 구문이 니팔 이라고 불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창세기 18장 18절과 28장 14절에서도 니팔 의 히브리어 구문과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창세기 22장 18절과 26장 4절의 히파엘에는 히브리어 구조의 또 다른 동사형인 히파엘 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동사는 니팔 이고 두 번 동사는 히트파엘 이지만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때로는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이 문구가 어떻게 가장 잘 번역되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인 칠십인역이 다섯 구를 모두 미래 중간이 아닌 미래 수동으로 일관되게 번역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즉,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가 지속적으로 수동태로 이해되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이제 당신은 RSV에 와서 그것을 수동태로 갖지 않고 반사적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스스로를 축복할 것이라.” 일종의 반사적인 행동이다. 문제는 왜 다르게 번역했는가 입니다. 주석을 보면 대부분의 현대 주석이 RSV처럼

번역하고 반사적으로 작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주석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동 어간인 니팔은 재귀 어간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귀 어간인 히트파엘 은 수동 어간으로 번역될 수 없다고 종종 말합니다 .

이제 참고문헌에 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3페이지 상단에 Ephraim Speiser의 책인 Anchor Bible 시리즈 창세기의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Speiser는 86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 형태는 항상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수동태인 니팔 (Niphal)과 마찬가지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히트파엘 에는 반사적이거나 상호적일 수 있지만 수동적이지 않은 형태의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 Speiser가 말하는 핵심은 Hithpael 이 수동적으로 번역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의 나라들이 그들 자신이나 서로를 축복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을 그들의 이상으로 지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동형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누리는 특권이 다른 나라에도 확대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 차이는 표면적으로는 미미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며, 언어적 사용에서 증거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Speiser는 당신이 그것을 반사적으로 번역하든 수동적으로 번역하든 큰 신학적 중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옳습니다. 이 말은 다른 민족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통해 그들에게 일어날 일로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이상으로 여기고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를 축복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Speiser는 Hithpael 을 수동태로 번역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섯 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즉, 같은 문구가 반복됩니다. 따라서 수동적으로 번역하는 대신 Speiser와 다른 사람들은 히브리어에서 일반적으로 수동적으로 사용되는 니팔을 사용하더라도 반사적으로 번역합니다 .

이제 질문은: 히트파엘 을 수동태로 번역할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당신 의 참고문헌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책 372페이지에 있는 Alan MacRae의 “바울의 이사야서 65장 1절 사용” 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기사는 창세기 12장이나 이 본문에 없지만 그는 히트파엘 . 그리고 이 책 372페이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히브리어에 관한 대부분의 책은 100년 전의 히브리어 문법에 나온 진술을 무비판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으며, 때때로 이 진술은 완전한 조사를 통해서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히트파엘어가 수동태인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 이제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결코 수동태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히트파엘어가 수동태인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적어도 그 발생의 4분의 1은 수동태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 1/3 이하가 반사적이며 상호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히트파엘의 존재가 인정된 것은 최근 몇 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는 그 이상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요점은 MacRae가 “발생의 4분의 1은 수동태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히트파엘을 수동태로 번역할 수 없다는 진술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는 해당 진술을 다시 볼 때 이를 반사적 또는 수동적으로 번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중요성에 대한 이해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문법은 그것이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것은 많은 주석이 아니며 Speiser가 표현한 것처럼 Hithpael은 수동태로 번역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관심이 있고 모호한 점처럼 보일 경우 1937년 Princeton Theological Review에 있는 OT Allis의 항목인 “The Blessing of Abraham”에서 이에 대해 읽을 수 있는 좋은 기사가 있습니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해 매우 철저하고 신중하게 논의했습니다. 나는 그가 말한 첫 두 페이지에서 히트파엘이 수동적일 수 없고 반사적일 수만 있다는 잘 알려진 문법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이 누락된 사실을 알았다면 일반 규칙에 대한 의심스럽거나 무시할 수 있는 예외 사항에 신경 쓸 필요가 없도록 해준 McPhadon 박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 그러나 학생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 달려 있고 Dr. McPhadon의 문법 열쇠가 그 영광스러운 약속에서 복음주의적인 마음을 잘라낸다는 일반 규칙에 대한 이 중요하지 않은 예외가 타당성에 달려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 만일 그가 진지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이 문제에 관해 그는 전혀 다르게 느낄 것입니다. 히트파엘 의 가능한 의미 에 대한 문제는 히브리어 문법의 마른 뼈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적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어 문법이 다소 중요한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사에서 Allis는 더 나아가 이 다섯 구절이 모두 사마리아인 , 바빌로니아 및 예루살렘 타르굼에서 수동태로 번역되었으며, 70인역뿐만 아니라 타르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합니다. 타르굼은 유배 이후 근동에서 아람어가 지배적인 언어가 된 이후에 히브리어 구약성서를 아람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그 타르굼은 수동적입니다. 칠십인역과 불가타역, 신약성경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경우는 항상 수동적입니다.

물론 신약성서의 인용문은 우리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세우신 약속과 언약의 상속자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갈라디아서 3장 8절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하되 모든 족속이 네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수동적입니다 . 바울의 말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는 이 약속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미리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나는 그것이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이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브라함은 어떻게 열방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까? 나는 그 축복이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서 뱀을 상하게 할 그의 씨 안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키며 , 그리스도와 그분이 확보하신 구원을 앞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약속에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는 사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과 의견이 있으신가요?

신약의 어느 구절에도 다섯 구절 중 어느 구절도 직접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다섯 가지 요소를 결합한 일종의 단어 변경입니다. 5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주장이 “그들은 니팔의 진술 중 하나를 인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약간 의역하고 재구성한 방식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기본 진술의 본질을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또한

절반은 한 방향으로, 절반은 다른 방향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일관되게 번역하는 이유가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의 나머지 부분에서 바울은 구약의 역사를 추적합니다. 그는 출애굽부터 다윗을 거쳐 그리스도까지 구약의 역사를 추적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는 여러 곳에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이신 그리스도에 관해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중에서 구원자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씨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어디에 있었느냐? 사도행전 13:32,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노니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셨으니 곧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조상들에게 이루셨음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에서 나온 그러한 언급은 창세기 12장 3절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이는 재귀가 아니라 수동이라는 이해와 함께입니다.

따라서 이 진술과 아브라함에게 제시된 이러한 약속의 진술에서 우리는 Vos가 77페이지에서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참고 문헌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시 사역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엄청난 의미이다.” 우리가 추적하려고 노력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뿌리를 둔 약속의 계열의

진행이며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진전을 이룹니다. 아브라함의 계통은 그 계통이 진행될 계통이다.

창세기 12:7 - 약속된 땅

창세기 12장 7절은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여러분은 이 구절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누군가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이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동산에서 거니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셨다” 는 표현은 처음 나온 것입니다. 이 사건과 그에 따른 여호와의 출현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기술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는 “신현(theophany)”, 즉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신현” 을 정의한다면 그것은 외부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일시적인 형태의 신의 현현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신현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다양한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게 만드십니다. 이제 이 특별한 경우에 신현의 형태가 무엇인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가시적인 계시였습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라는 동사형은 동사 라아(r

a' a) 의 수동형이다 . 수동태는 “하나님이 보이셨고 나타나셨느니라”
입니다.

다른 아브라함 언약 구절: 약속된 땅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일반적으로 환상의 상황은 언어로 신현과
구별됩니다. 환상적 경험은 외부 감각 인식과 관련이 없으며 내부적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형태로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거나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볼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으므로
그가 또한 듣는 것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제 그 땅에 대한 약속은 17장 7절 후반부와 15
장에서도 다시 언급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7장 7절에서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후손 사이에 대대로 세우리라. 와서 네 하나님이 되고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니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약속은 미래에도 무기한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그것이 이미 적절하게 성취되었는지, 약속의 이
영원한 측면이 현재까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많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나는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의 땅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영원한 언약과 평행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유효한 실체로 남아 있는 한 땅에 대한 약속도 이에 상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완전한 실현은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구약의 예언서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나의 이해는 미래에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서는 분산 이후의 땅과 미래의 귀환에 관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 약속에는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그 말씀이 충분히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유배에서 돌아온 것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적절한 성취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땅 약속이 땅이 세상으로 확장된다는 의미에서 교회에서 실현된 영적 성취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에 유대인들과 함께 지리적 성취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징이 될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말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이는 이 과정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러나 나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미래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다윗 시대에 잠정적으로 성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의 경계를 보면 다윗 시대에 유브라데 강에서 애굽 강까지의 경계를 보면 왕국이 그 경계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 경계가 정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그것이 일시적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유실되었으며 그 약속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나는 미래에 성취될 것을 기대합니다.

창세기 15장 언약의 비준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한 두 번째 구절인 창세기 1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15장을 여호와와 언약의 맹세에 의한 언약의 비준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은 흥미로운 장이고 전체 내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장을 끝까지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아직 자식이 없고 내 기업을 상속받을 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그리고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

당신은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내 집안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지라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시고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그러나 아브람은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줄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년 된 암송아지와 염소와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하시매 아브람은 그 모든 것을 그에게 가져왔고, 그것들을 둘로 나누고 그 반쪽을 서로 마주보게 배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들을 반으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맹금들이 그 사체 위로 내려왔지만 아브람이 그것을 쫓아내었더라. 해가 질 때에 아브람은 깊은 잠에 빠졌고 질고 무서운 어둠이 그를 덮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분명히 알라 네 자손이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백 년 동안 종노릇하며 학대를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요 그 후에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 그러나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을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노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경계가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구절에서 알아차린 것처럼 주님께서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그것은 사람이 정상적인 감각 지각과는 별개로 인상을 받는 환상적 배경입니다. 그는 사물을 보고 들을 수 있지만 귀와 눈의 외부 메커니즘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입니다. 4절과 5절에서 주님은 큰 씨에 대한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엘리에셀은 선택받은 후손이 아니라 자신의 사자 중에서 나올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큰 민족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

6절은 인상적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믿음과 의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연결된 것은 성서에서 처음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주목하십시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그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로마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제 사람이 일할 때 그 품삷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고 의무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악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여기서 당신은 믿음에 근거한 의의 전가 또는 계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관한 레오폴드의 논의는 훌륭합니다.

언약 맹세 의식: 언약 의식을 끊다 - 연기 나는 용광로가 지나가는 환상
부품 사이

더 아래로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동물을 잡아 죽이고 반쪽을 열어 놓은 다소 신비한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해 질 때에 아브람이 깊이 잠들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미 환상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지고 “캄캄하고 무서운 어둠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연기 나는 풀무, 타는 등불이 죽임을 당한 동물의 쪼개진 틈 사이로 지나는데, 이는 다소 신비하고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질문이 있습니까?

Meredith Kline의 저서 By Oath Consigned에 이에 대한 좋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게 당신의 참고문헌 13페이지 중간쯤이에요. 당신은 언젠가 16페이지 와 45페이지를 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메러디스 클라인(Meredith Kline)은 새 성경 주석의 “창세기 주석” 부분, 그 책 95

페이지의 창세기 부분에서 훨씬 더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클라인은 거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맹세 의식은 조약 비준에서 관례였습니다. 여기에서 언약을 맺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관용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관용구인 'cut a contract' 와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접해 본 분들은 아마도 영어로 읽을 때 누구든지 언약을 맺었다는 것, 또는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언약 또는 번역이 무엇이든 히브리어의 문자 그대로 번역은 “언약을 자르다”입니다. 히브리어 표현은 카라 트 베리트 (계약을 끊다)입니다.” “계약을 맺다” 라고 말하면 관용어의 배경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관용어의 배경은 동물을 둘로 나누는 이러한 종류의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과 관련된 비준 의식입니다. 동물 살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클라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맹세 의식은 조약 비준에서 관례적이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히브리어 ‘계약을 맺다’ 와 같이 언약을 맺는 데 대한 다양한 관용어가 파생되었습니다. 맹세에서 조건부로 적용되는 저주는 동물을 죽여 나누는 행위로 상징되었으며 ‘이 언약을 어기는 자에게도 이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것과 관련된 구절이 예레미야 34장 18절입니다.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앞에 맺은 언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나도 그들이 송아지를 둘로 나누고 그런 다음 조각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언약을 공식화하는 맥락에서 송아지를 둘로 자르고 두 부분 사이를 통과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궁정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송아지 조각 사이에 다니던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붙이리라.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되리라.” 언약 비준 의식 에 대한 언급의 언어는 창세기 15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매우 유사합니다.

스파이저는 자신의 앵커 성경 주석에서 마리 문서(마리에서 발견된 텍스트)의 아모리인들이 이런 종류의 의식에 당나귀를 사용했으며 그 결과 마리 문서의 용어에서 관용어는 “당나귀를 죽이는 것”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계약이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언약을 맺는다는 뜻의 관용적 표현인 “계약을 맺다” 라는 의미의 카라트 베리트(karat berit)가 있지만 이 언약의 확립과 관련된 이 의식을 반영합니다.

이제 17절에 이르면, 죽임을 당한 동물의 부분 사이를 연기 나는 풀무가 지나간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등불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일종의 신현적 표현이라고 이해합니다. 맹세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임을 당한 동물의

부위 사이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클라인은 자신의 주석에서 “신현은 다른 곳에서 자주 그렇듯이 불과 연기의 요소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쪼개진 조각 사이를 홀로 지나가심으로써 자신의 계약 약속에 대한 충실성을 맹세하셨고, 시체로 상징된 모든 저주를 자신이 짊어지셨습니다.”

클라인은 자신의 저서 *By Oath Consigned*에서 약속 언약과 율법 언약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자세히 논의합니다. 약속의 언약에서 맹세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 언약에서는 맹세하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 그러므로 예를 들어 이 언약, 즉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비교해 보면 여기 아브라함 언약에서 맹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짐승의 지체 사이로 지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 시내산 언약을 받아들인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다” 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언약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의식은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적 성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 이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주권/가신 조약에서 대왕이 아니라 하급 파트너들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시내산은 법률 조약과 유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조약 형식을

창세기 15장과 17장과 평행시키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 조약의 일부 평행이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 평행은 아브라함 언약보다 시내산 언약과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실제로 위대한 왕이 봉신의 땅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약속하는 약속 교부금과 더 유사합니다.

질문: 공포와 어둠의 의미에 대해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Vannoy: 그것은 매우 엄숙하고 무서운 사건을 그린 그림일 뿐입니다.

By Oath Consigned의 Meredith Kline은 이것이 구약의 골고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공포스러운 것이 설정에 내장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내일 이 시간에 전화를 받겠습니다.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Ted Hildebrandt의 대략적인 최종 편집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가 다시 해설함